

송건호의 언론활동과 언론사상*

박용규**

송건호는 기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가장 존경하는 인물’로 선정된 바 있다. 송건호는 언론인으로 활동하며 언론이 정권의 탄압에 굴복하고, 정권의 특혜를 받으며 기업화되는 과정을 직접 경험했다. 그는 1975년에 『동아일보』가 정권의 탄압에 굴복해 기자들을 대량 해고하자 책임감을 느끼고 신문사를 퇴직했다. 그 후 그는 권력과 자본에 종속된 언론에 대해 더욱 예리한 비판을 가했다. 송건호 언론사상의 핵심은 언론이 권력과 자본으로부터 독립해 민족주의와 민주주의에 기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그는 언론인이 기능인과 같은 역할만을 하는 것을 넘어서서 역사 의식과 사회과학적 지식을 갖추고 활동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의 언론사상은 또 다시 언론의 독립이 위태롭고 언론인의 기능인화가 드러나는 현재의 언론 현실에서도 여전히 유효하다. 그의 언론활동과 언론사상을 살펴보는 것은 미디어 환경의 변화 속에서 언론의 올바른 역할과 언론인의 바람직한 자세를 모색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송건호, 언론인, 언론활동, 언론사상

1. 문제의 제기

송건호는 2000년 『기자협회보』가 서울 지역 일간지 기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생존하는 언론인 가운데 ‘가장 존경하는 인물’로 선정되었다(2000.11.14). 또한 2003년 『미디어오늘』이 기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도 존경하는 언론인 1위로 선정되었다(2003.1.1).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질곡의 한국 언론사에서 지조와 양심을 지킨 대표적인 언론인이었기 때문이다. 즉, 그가 스스로 “형극의 길이자 수난의 길”이며, “사회의 온갖 세속적 가치로부터 소외되는 길”이라고 밝힌 바 있는 ‘역사의 길’을 걸었기 때문에(전집 11, 15~18쪽)¹⁾ 그는 오늘 날 ‘가장 존경받는 언론인’이란 평가를 받을 수 있었다.

그는 ‘정론직필’을 실천한 언론인이었고, 현대사 연구를 개척한 역사가이기도 했다. 1953년에 처음 기자가 되어 1975년에 『동아일보』에서 기자들이 대량 해직되기 직전에 도의적 책임을 지고 편집국장을 물러나 언론계를 떠날 때까지 여러 신문의 논설위원과 편집국장을 지냈고, 1988년에 다시 언론계로 돌아와 새로 창간된 『한겨레신문』의 사장과 회장을 지내기도 했다. 또한 그는 기존 역사학계가 도외시 하던 현대사 연구에 관심을 가져, 분단 현실과 통일 문제를 다룬 다양한 저서들을 남겨놓았다. 나아가

* 이 논문은 2010년도 상지대학교 교수연구년제 지원에 의한 것임

** 상지대학교 언론광고학부 교수(ygpark@sangji.ac.kr)

1) 본 논문에서 송건호가 쓴 글들은 거의 모두 2002년에 한길사에서 간행한 『송건호 전집』을 활용했다. 이 전집에는 원래 글이 쓰여진 시기가 나와 있지 않은 경우가 상당수 있다. 쓰여진 시기가 나와 있지 않은 경우에도 가능한 글이 집필된 시기를 찾아내거나 글의 내용을 보고 집필 시기를 추정해 언급할 것이고, 인용에서는 전집의 권수와 쪽수만을 밝힐 것이다. 다만 송건호의 언론사상이 담겨 있는 글에 한해 글의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 제목을 본문에서 별도로 밝힐 것이다. 글의 집필 시기를 언급하는 것은 그의 언론사상이 어떻게 변화되어 갔는가를 살펴보기 위해 필요하기 때문이다. 전집에 실려 있지 않은 글이거나 전집에 실려 있지만 일부 내용이 빠져 있는 글은 별도로 출처를 밝혔다.

무엇보다도 그는 한국 언론의 자유와 독립 쟁취를 위한 역정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해, 후배들에게 ‘언론인의 사표’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동아일보』 해직기자로서 송건호를 ‘내 인생에서 가장 큰 스승’이라고 평가하는 성유보는 “오늘날 한국의 언론인들이 송건호 선생님이 사셨던 ‘언론인의 혼’을 반의반만 지키고자 한다고 해도 한국 언론은 진정한 의미의 ‘사회적 목탁’으로 자리 잡고도 남을 것”이라고 주장했다(『한겨레신문』 2001.12.22). 송건호의 평전을 쓴 김삼웅은 “시대는 조심스런 언론인을 역사의 사람으로 만들었다”고 표현한 고은의 시를 인용하며, 송건호가 ‘언론계의 죽비’였고 ‘사회의 목탁’이었으며 ‘시대가 투사로 만든 언론선비’였다고 평가했다(김삼웅, 2011, 376~377쪽). 즉, 송건호가 진정한 한국 ‘언론인의 혼’을 간직했던 인물이며 동시에 한국 언론 현실의 불의를 온몸으로 맞서 싸웠던 ‘언론선비’였다는 것이다.

송건호는 기자가 된 이후 언론 현실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꾸준히 밝혀 왔다. 언론계에 몸담고 있을 때는 물론 언론계를 떠나 있는 동안에도 그는 언론 현실을 비판하고, 바람직한 언론과 언론인의 모습을 제시하고자 노력했다. 그는 한국 언론의 현실에 휩쓸리지 않고, 평생을 권력과 자본으로부터 독립된 언론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고, 항상 “먼 훗날에도 욕을 먹지 않는 글을 쓰겠다는 마음을 다짐”하며 글을 썼다(송건호, 1979, 168쪽). 그가 꾸었던 ‘독립·자유 언론’과 ‘역사의식을 갖춘 언론인’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험난한 역사의 길’을 걸었던 그의 언론사상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송건호의 언론사상을 살펴봄으로써 한국 언론의 역사 속에서 바람직한 언론의 역할과 언론인의 자세를 모색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한겨레신문』이 창간된 1988년 이전까지 송건호가 언론 현실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무엇을 비판했으며, 어떤 대안을 제시했는지를 중심으로, 그의 언론사상의 변화과정과 그 특성을 정리해보고자 한다. 송건호의 언론사상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위해 먼저 언론의 역할과 언론인의 특성의 변화 과정에 대한 기존 논의들을 정리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송건호의 언론사상의 형성과정에 영향을 주었다고 할 수 있는 그의 언론활동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그 다음으로는 송건호의 언론사상을, 언론의 역할과 언론인의 특성에 관한 주장으로 나누어 구체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를 종합하여 송건호의 언론사상의 의미와 영향에 대해 평가해볼 것이다. 이렇듯 송건호의 언론사상을 살펴보는 것은 한국의 언론 및 언론인의 바람직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2. 언론의 역할 및 언론인의 특성의 변화

서구사회에서는 17세기에 근대신문이 등장하기 시작하여, 18세기에 신문에 대한 정치적, 법적 제약들이 완화되면서 신문이 급격히 발전하기 시작했다. 19세기 중반 이전까지의 신문들은 대체로 특정 정치세력의 입장을 대변하는 ‘정론지’(政論紙)의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 근대시민사회의 성립을 위한 투쟁의 과정에서 앞장섰던 신문들은 점차로 다양한 세력들의 정치적 대립과 투쟁의 수단으로 활용되었다. 이런 정론지들은 주로 특정 독자층의 구독료나 후원금에 의존해 발행되며, 다양한 독자층을 확대하려는 시도들을 적극적으로 하지는 않았다(Smith, 1979/1990, pp.141~175).

미국과 영국에서는 19세기 중반에 들어서서 신문이 발전할 수 있는 경제적 기반으로 판매시장과

광고시장이 확대되면서 점차로 특정 정당이나 정부의 지원을 받는 정론지 또는 정당신문의 성격을 벗어나서 상업지적인 성격을 지닌 대중신문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미국의 경우 대중적인 상업지의 본격적인 등장을 예고했던 ‘염가신문’(penny papers)시대를 거쳐(Hallin, 1985, pp.127~129) 19세기 말에 이르러서는 정당신문 시대가 끝나고 뉴저널리즘과 ‘황색언론’(yellow journalism)으로 대표되는 대중신문 시대로 돌입했다. 영국의 경우 19세기 중반 인지세가 폐지되면서 대중신문의 급격한 발전과 함께 신문의 기업화가 촉진되었다(Curran, 1979, pp.109~146). 신문들이 정치적으로 자유를 획득하면서 대중신문으로 발전했지만, 신문의 기업화와 함께 이제는 경제적 통체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런 변화는 ‘정치적 역할’에 치중하던 신문이 이제 ‘정보 제공’에 중점을 두는 단계를 거쳐 ‘이윤추구’에 집중하는 단계로 나아갔다는 것을 의미했다(Dicken-Garcia, 1989, pp.223~228). 상업적인 대중신문이 발전하면서 편집인의 주관적 견해를 위주로 하여 정치적인 여론 선도에 치중하던 ‘의견신문’(opinion paper)의 전통은 급격히 퇴조했다(Smith, 1979/1990, p.260). 즉, 상업주의적인 대중신문이 발전하면서 보도의 객관성이 기자들의 직업이념으로 정착되어 나갔던 것이다(Schiller, 1979, pp.46~57). 대중신문들은 특정한 입장에서 ‘정치적 의견’의 제시보다는 ‘객관적 사실’의 전달을 통해 더 많은 독자를 확보하려고 노력했다.

대중신문이 발전하면서 언론인들은 정론(政論)을 펼치는 문필가로서의 비판적 기능을 상실하고 신문기업의 사적 이익 실현을 위한 기능적 역할만을 수행하게 되었고, 신문도 ‘공공영역’(public sphere)로서의 기능을 점차로 상실하게 되었다(Habermas, 1987, pp.181~195). 즉, ‘독립적인 사건의 해석자’였던 언론인이 대중신문의 발전에 따른 객관보도의 등장과 함께 독립성을 상실하고 ‘뉴스전달 과정의 기술적인 한 부분’이 되었던 것이다(Carey, 1979, p.32). 대중신문이 등장하면서 비판적 지식인들의 문필 활동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던 언론 활동이 이제 직업적 기자들의 전문적 취재보도활동으로 변화되어 나갔고, 이런 활동들은 신문기업의 이익실현을 위한 중요한 수단이 되었다²⁾.

상업적인 대중신문들의 등장에 따른 직업적인 기자들의 출현은 발행인으로부터 편집인이 분리되고, 다시 기자가 분화되어 나갔던 ‘전문화’(specialization)의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Nerone, 1987, pp.397~398). 이런 분화과정을 통해 상업주의적인 목표에 치중하는 경영진과 언론의 사회적 역할을 고려하는 편집진 사이에 갈등이 불거지기도 했다(Tunstall, 1974, p.25). 경영진이 일종의 산업으로 신문의 이익에 치중했다면 언론인들은 민주주의의 중요한 제도로써 신문의 가치에 중점을 두면서 갈등이 벌어지기도 했던 것이다(Hart, 1980, p.268). 즉, 서구사회에서의 기자직은 노동과정에서의 자율성 확보, 기자 집단의 사회적 지위와 신뢰의 확보, 공개장의 파수꾼으로서의 역할 등이 언론 조직의 이윤 극대화라는 경영상의 요구와 대립하고 갈등하는 과정을 통해 성격이 규정되었다(강명구, 1993, 164쪽).

위와 같은 미국이나 영국에서의 언론의 역할 및 언론인의 특성의 변화과정이 유럽에서는 다소 다른 양상으로 나타났다(Mancini, 2005; Schudson, 2005). “영미모델이 언론의 기능을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객관적인 사실을 균형있게 전달하는 데에 둔다면, 유럽모델은 정당과의 강한 연계에

2) 서구사회에서 대중신문 등장 이전의 언론인들에 대한 평판이 반드시 긍정적이었던 것은 아니었다. 특히 미국의 경우 인쇄인 출신의 언론인들에 대한 평가는 오히려 대단히 부정적이었다(Fedler, 2000, pp.12~14). 미국의 경우 유럽 국가들에 비해 지식인들의 문필적 활동으로서의 언론활동의 전통이 상대적으로 약했다는 점도 이런 평가를 낳는 데 영향을 주었다고 할 수 있다.

근거하고 있어서 이념적, 정치적 지향성이 강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언론인의 특성도 전자의 경우 직업적 자율성을 갖고 특정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갖는 것을 목표로 한다면, 후자의 경우 사회 전반에 대한 폭넓은 지식을 기반으로 하는 뛰어난 문필가적 활동을 지향한다고 할 수 있다(임영호, 2007, 240~244쪽). 특히 영국이나 미국에서 대중신문이 발전하면서 확립되어 전 세계로 퍼진 객관보도의 원칙이 상대적으로 유럽에서는 덜 영향을 미쳤다.

한국의 경우 식민지 시기와 권위주의 정권 시기를 거치며 ‘언론의 저항성’이 체질화되었다는 평가를 듣기도 했다(김규환, 1961; 이상우, 1969). 일종의 정론지적 특성을 지니고 있던 신문들이 1960년대 말부터 본격적으로 상업적 대중신문으로 변모했는데, 서구사회와는 달리 정부의 개입이 이런 신문의 기업화 과정에 큰 영향을 주었다(주동황, 1993). 정론지적 특성이 강하게 남아 있던 1950년대까지의 언론인들은 이른바 비판적 지식인으로서의 ‘지사(志士)적 특성’을³⁾ 보였다고 평가되었다(장은미, 2007, 98~107쪽; 최이숙, 2009, 173~180쪽). 그러나 1960년대에 신문의 정론지적 특성이 사라지고 상업적 대중신문이 본격적으로 발달하면서, 객관보도가 강조되고 언론인의 ‘기능인화’가 이루어졌다(유선영, 1995, 112~121쪽).

송건호는 정권과의 유착 관계 속에 신문이 기업화되고, 경영진과 편집진의 대립 관계 속에 언론인이 기능인화 되던 시기에 언론활동을 하며, 이런 현실에 대한 비판적 견해를 보여주었다. 한국에서 신문이 정론지에서 대중지로 변화하고, 언론인이 ‘비판적 지식인’에서 ‘직업적 기능인’으로 변화했던 과정은 언론의 ‘유럽모델’은 물론 ‘미국모델’과도 완전히 일치하는 것은 아니었다. ‘정권의 강력한 언론통제’와 ‘지사적 언론인의 전통’이라는 두 가지 요인이 작용했기 때문이다. 송건호가 한국 언론의 역할 및 언론인의 특성의 변화과정에 대해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한 내용들이 언론의 ‘영미모델’이나 ‘유럽 모델’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송건호의 언론 사상을 평가하는 데 유용한 측면이 있을 것이다. 또한 송건호의 언론활동이나 언론사상이 ‘전통적 언론인상’인 지사적 기자나 ‘근대적 언론인상’인 전문직으로서의 기자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3. 송건호의 언론활동의 변화과정

송건호는 1926년 충북 옥천에서 태어나, 그곳에서 보통학교를 나오고 1940년 서울로 올라와 한성상업학교를 나왔다⁴⁾. 그는 이미 이때부터 고서점을 다니며 독서에 열중했고, 이런 습관은 평생 동안 계속되었다. 송건호는 일제 말기에 민족차별을 경험하며 ‘민족’에 눈을 떴고 민족의식을 키워나갔다(전집 18, 238쪽; 전집 20, 292쪽). 1946년에 경성법학전문학교에 입학했지만 학교가 격동에 휘말리면

3) 천관우는 전통사회의 이념이었던 유학과 근대사회의 새로운 현상인 저널리즘이 사학을 매개로 결합되었기 때문에 구한말의 저널리즘은 ‘사학-경제학(經世學)-저널리즘’의 매개 위에 성립되었다고 주장했다(천관우, 1971, 34~35쪽). 이것은 구한말의 언론인들 중 상당수가 유교적 전통에 입각한 현실참여의 한 방법으로 언론활동을 하게 되었다는 것으로, 이들이 언론인이며 동시에 역사가이자 민족운동가였던 ‘지사적 언론인’이었다는 점을 강조했던 것이다. 이런 지사적 언론인의 전통은 천관우, 송건호에 이르러 단절되었다고 할 수 있다(김영희·박용규, 2011).

4) 송건호의 경력에 관한 기본적인 사실들은 모두 그의 화갑기념문집에 실린 연보와(기념문집 편집위원회, 1986) 정지아가 쓴 평전의 연보를 활용했다(정지아, 2008, 415~419쪽). 다만 이 연보들의 사실 중에 착오가 있다고 판단한 부분이나 연보에 언급되지 않은 내용을 다룰 때에는 별도의 출처를 밝힐 것이다.

서 학업을 계속하지 못했다. 1948년에 서울대 법대에 입학했지만 6·25전쟁으로 다시 학업을 잠시 중단하고 낙향했다.

전쟁 후인 1953년에 서울로 올라와 복학해 학교에 다니면서, 분단 조국에서는 관리가 되지 않겠다고 결심하고(전집 20, 297쪽) 대한통신 외신부 기자가 되었다. 이후 그는 1954년에 『조선일보』 외신부 기자, 1958년 『한국일보』 외신부 차장, 1959년 『자유신문』 외신부장 등 줄곧 외신부 기자로 활동했다. 기자로 활동하면서도 학업을 계속해 1956년에 대학을 졸업했다. 그가 계속 내근 업무를 하는 외신부에 근무했다는 것은 촌지를 받지 않았다는 것뿐만 아니라 계속 공부를 할 수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했다.⁵⁾ 한편 그는 외신부에 근무하면서도 당시 영어깨나 하는 언론인이려면 너도나도 가보려고 했던 미국에 가려고 하지 않았다.

그는 1960년에 『세계일보』의 조사부를 거쳐, 6월에 『한국일보』의 논설위원이 되었다⁶⁾. 언론계에 들어온 지 7년 만에 논설위원이 되어 ‘논객’으로서의 그의 진면목을 보여줄 수 있게 되었다. 그는 1961년에 『민국일보』로 옮겨다가 이 신문이 7월에 폐간되며 다시 『한국일보』 논설위원으로 돌아왔다(김삼웅, 2011, 87쪽). 그는 1961년 3월에 ‘미국연수를 다녀 온’ 기자들이 중심이 되어 조직한 관훈클럽에 가입했지만, 활발한 활동을 보여주지는 않았다⁷⁾. 그는 1962년 4월에 『경향신문』으로 옮겨 논설위원이 되었고(관훈클럽, 2007, 243쪽) 1965년 말에는 편집국장이 되었다. 그가 편집국장을 맡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은 1966년 1월에 『경향신문』은 박정희 정권의 강압에 의해 강제매각 처분되었다. 그는 “그때 중앙정보부장 김형욱한테 붙들려가서 대통령과 적당히 타협하면 되지 않겠느냐는 말”도 들었다고 한다(전집 20, 305쪽). 정권의 언론탄압을 직접 체험할 수 있었던 것이다.

『경향신문』을 떠난 그는 1966년에 『조선일보』 논설위원이 되었다⁸⁾. 송건호는 주필 최석채와 ‘김두한 국회 오물투척 사건’ 보도를 둘러싼 견해 차이로 갈등을 겪었다⁹⁾. 그는 『조선일보』 논설위원 신분을 유지한 채 1968년 2월 22일부터 7월 1일까지 서베를린 대학 신문연구소에 나가 있으며(『조선일보』 1968.2.23; 1968.7.2) 특과원 같이 『조선일보』에 계속 기사를 송고했다¹⁰⁾. 이 기간은 그에게 당시

- 5) 1957년에 합동통신 외신부 기자가 되었던 이영희는 외신부 기자들이 “정권과 한통속이 되어 흥청대는 출입처 취재기자에 대한 묘한 감정이” 있었다고 하며, 자신은 취재원과 어울려 “사회의 타류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생활을 하지 않으려 했고, ‘공부’에의 욕심’을 갖고 국제 분야에 대한 연구를 했다고 주장했다(이영희, 1988, 277쪽, 389~390쪽). 송건호도 외신부 기자로서 이영희와 비슷한 모습을 보였다고 할 수 있다.
- 6) 송건호는 1960년에 『세계일보』에 있다가 『한국일보』로 옮기는 과정에 잠시 언론계를 떠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송건호 연보’에는 『세계일보』에 있다가 바로 1960년 6월에 『한국일보』로 옮긴 것으로 되어 있지만(정지아, 2008, 416쪽), 송건호가 잡지 『세계』 1960년 7월호에 쓴 글에 ‘사회평론가’로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이글이 실린 이후에 『한국일보』로 옮겨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7) 송건호는 미국 연수를 다녀오지 않았고, 관훈클럽에도 가입만 하고 별로 활동하지는 않았다. 이영희도 1959년 9월부터 6개월 동안 미국무성 지원으로 미국연수를 다녀오고, 1961년부터 2년동안 관훈클럽의 편집위원과 재무를 담당 하기는 했지만, 적극적으로 활동했다고 보기는 어려웠다(관훈클럽, 2007, 478~479쪽; 이영희, 1988, 265~266쪽).
- 8) 네이버의 디지털뉴스아카이브를 통해 검색된 기사 중에 송건호가 등장하는 『경향신문』의 마지막 기사는 1966년 4월 13일자이고, 『조선일보』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확인한 기사 중에 송건호가 언급된 최초의 기사는 1966년 9월 20일자이다. 대략 1966년 4월말 이후에 『조선일보』로 이직한 것으로 보인다. 김언호는 구체적인 자료의 제시 없이 1966년 5월 1일에 『조선일보』에 논설위원으로 입사했다고 밝히고 있다(김언호, 2009, 106쪽)
- 9) 송건호는 김두한에 대한 보도를 둘러싼 최석채와의 갈등으로 『조선일보』를 떠나 『동아일보』로 옮겨갔다고 회고했다(전집 20, 305~306쪽). 김두한 오물 투척 사건은 1966년 9월의 일인데, 당시의 『조선일보』를 검색해보면 그가 1969년까지 계속 논설위원으로 재직하는 것으로 나와 있다. 기억에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 10) 정지아는 1966년 9월의 갈등 이후 1968년 베를린에 가기까지의 ‘시간차’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혀진 바”가 없다고

서독에서 논의가 활발했던 ‘언론의 내적 자유’에 대한(박홍원, 2011, 141~142쪽) 이해를 넓히는 계기가 되었을 것이다. 그는 당시 언론인들이 주로 미국을 갔던 것과는 달리 유럽행을 택했는데, 이때의 경험이 그의 언론사상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그는 『조선일보』에 재직하던 1967년에 “『조선일보』가 코리아나호텔 건축으로 현금차관을 받아 국민이 아는 등 모르는 등 하는 사이에 권력과 밀착”하게 되는 과정을 지켜보기도 했다(전집 9, 188쪽).

베를린에서 돌아와서도 계속 『조선일보』논설위원으로 재직하던 송건호는 1969년에는 다시 『동아일보』로 옮겨 논설위원이 되었다. 훗날 그가 “한국의 언론기업이 권력에 완전히 굴복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리는 매우 상징적인 사건”이었고, 곧 ‘권·언 복합체를 형성’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했던(전집, 9, 189~190쪽) ‘신동아 사건’이 벌어진 다음 해에 『동아일보』에 입사했다. 그는 『동아일보』에서 1973년에 수석논설위원이 되었고, 1974년 9월에 편집국장이 되었다. 그가 편집국장이 되었던 1974년은 유신체제의 폭압이 극성을 부리며, 기관원들이 언론사에 상주하다시피 하던 시기였다(김혜식, 1994, 124~126쪽). 그는 『동아일보』에 재직하던 1971년에는 신문사 내의 통일문제연구소장을 맡았고, 1972년에는 남북적십자회담의 자문위원으로 평양에 다녀오기도 했다(김언호, 2009, 119쪽; 정지아, 2008, 163~175쪽). 민족주의자로서 통일에 큰 관심을 가졌던 그에게는 통일 문제를 깊이 있게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¹¹⁾.

1974년 10월 23일 정권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동아일보』가 서울대 시위 기사를 게재하자, 중앙정보부는 편집국장 송건호 등을 연행해갔다. 곧 풀려나기는 했지만 그의 연행은 자유언론에 대한 기자들의 의지가 결집되는 계기가 되었다. 1974년 10월 24일 『동아일보』 기자들은 ‘10·24자유언론실천선언’을 결의한다. 정권의 부당한 간섭에 단호히 맞서겠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었다. 정권은 교묘하게 ‘광고탄압’을 가했고, 경영진은 결국 굴복해 1975년 3월에 134명의 기사를 해직시키고 말았다(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2005, 102~180쪽). 송건호는 사태의 해결을 위해 노력했지만, 별 결실이 없자 “이런 판국에 자리를 지키고 있을 수 있겠느냐”며 편집국장을 사퇴했다(전집 20, 306쪽). 언론자유를 외쳤다는 이유만으로 젊은 기자들이 길거리로 내몰리는 현실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앉아 있는 것이 그에게는 양심상 허락되지 않았던 것이다. 『동아일보』에서의 경험은 그에게 권력에 굴복하고 유착한 언론의 문제점을 더욱 확실히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갑작스런 사직은 그에게 엄청난 생활상의 고통을 안겨주었다. 그는 뒤에 그 시절을 떠올리며 “그때는 내일은 또 어떻게 먹고 사느냐가 제일 고민”이었다고 대답했다(전집 9, 204쪽). 이런 가운데도 그는 이 시기에 본격적으로 현대사 연구에 뛰어들었고, 천관우의 권유로 민주화운동에도 관여하기 시작했다(전집 20, 307쪽). 1975년은 언론인 송건호에게 삶의 전환기였다. 이에 대해 『동아일보』 해직 기자로 출판사인 한길사를 운영해 온 김언호(2007)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1975년은 언론인 송건호에게 삶의 역정 또는 사상체계에 있어서 하나의 전환기가 된다. 동아일보 사태가 이 땅의 현대사에 그 어떤 계기가 되듯이, 그 시대상황에 정면으로 대응하는 지식인 송건호는 1975년 역사전개

했고(정지아, 2008, 127~128쪽), 김삼웅은 송건호가 최석채와 결별한 후 “2년여 동안 야인생활을 했다”고 주장했다(김삼웅, 2011, 119쪽). 그러나 송건호는 그 2년 동안 계속 『조선일보』에 재직하고 있었다.

11) ‘민족주의’는 그에게 가장 중요한 사상적 배경이었다. 송건호는 자신을 “굳이 나누자면 나는 진보적 민족주의자라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전집 20, 295쪽).

와 더불어 당대의 현실을 온몸으로 호흡하는 역사적인 삶을 살아가게 된다. 유신 권위주의 정치권력이 내리막을 향해 달리는 그 시대상황에서, 일찍부터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한사코 신뢰하던 민족주의자 송건호는 스스로의 문제의식을 심화시키면서 시대상황의 개혁에 앞장선 것이다.

언론계를 떠난 그는 원고료, 강연료, 강사료 등으로 근근이 생활하면서도, 정권의 관직 제의를 일언지하에 거절했다. 정권의 압력으로 원고청탁이 끊어지고 시간강사마저 못하게 되어 생활이 극도로 곤궁해졌음에도 정권의 각종 유혹을 계속 뿌리쳤다. 나아가 빈곤한 생활 속에서도 자신보다 생활이 더 어려워 보이는 젊은 해직기자들을 도와주기도 했다. 현대사 연구와 재야 활동으로 세월을 보내면서, 그는 양심적인 언론인이려면 곧 ‘역사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확실히 깨닫는다(전집 9, 213~222쪽). 또한 그는 1978년에 함석헌이 발행하던 『씨올의 소리』 편집위원이 되어 언론계와의 인연을 이어갔는데(기념문집 편집위원회, 1986), 이 경험은 그에게 독립언론의 가능성을 생각하도록 만든 계기가 되었다.

1980년 그는 역사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큰 고초를 겪었다. 1980년 봄에 신군부의 정권 장악이 착착 진행되는 과정에서 지식인의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1980년 5월 15일 지식인 134명은 정치민주화를 요구하는 시국 선언을 했다. 이 시국선언문을 썼던 송건호는 5·17 이틀 뒤에 시국선언을 주도하며 계엄령을 위반했다고 체포되었다.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의 조작을 위해서는 김대중과 언론계 사이에 연결고리가 있어야 했고, 그 고리로서 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이하 동아투위)를 설정했다. 송건호가 김대중에게 거액의 돈을 받아 동아투위에 전달했다는 것이다. 이런 사실을 조작하려던 정보기관은 그에게 무지막지한 고문을 가했다. 그는 이 사건으로 2심에서 2년을 선고받았다가, 11월초에 형 집행정지로 석방되었다(전집 9, 231~246쪽).

1984년 12월 동아투위, 조선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이하 조선투위), 80년 해직언론인들이 힘을 합쳐 ‘민주언론운동협의회’(민언협)를 결성하자 송건호는 초대 의장을 맡았다(전집 9, 252~253쪽). 해직언론인들이 언론민주화운동에 그를 앞세웠던 것이다. 민언협은 이듬해 월간지 『말』을 창간했다. 1986년 9월 그는 민언협 의장으로 천주교 정의구현전국사제단과 함께 ‘보도지침’ 자료 공개 기자회견을 했다. 전두환 정권이 자행한 언론탄압의 실상을 만천하에 알렸던 것이다. 이 사건으로 신흥범·김태홍·김주언 등이 구속되자 『말』지 발행 여부를 둘러싸고 민언협 내부에서 논쟁이 벌어졌는데, 송건호는 단호한 자세로 계속 발간을 주장했다(정지아, 2008, 339~344쪽). 이를 통해 대안언론으로서의 『말』지에 대한 그의 확고한 입장을 알 수 있다.

1987년의 6월 항쟁 이후 동아투위·조선투위·80년 해직언론인들은 새로운 신문의 창간을 논의했다. 이들은 모금운동 형식을 통해 창간 계획을 세상에 알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이듬해인 1988년 5월 15일에 국민주 방식의 모금을 바탕으로 『한겨레신문』이 창간되었다. 송건호는 『한겨레신문』의 초대 사장을 맡았다. 언론계를 떠난 지 13년만의 일이었다(한겨레 20년 사사 편찬위원회, 2008, 58~71쪽). 민주언론·민족언론·민중언론을 표방했던 『한겨레신문』의 창간은 언론사적으로 매우 큰 의미를 지녔고, 이런 신문의 사장으로 송건호 이상의 인물을 찾을 수는 없었을 것이다. 『한겨레신문』에 헌신하던 그는 사장, 회장, 고문을 거쳐 1994년에 은퇴했다. 고문후유증으로 인한 파킨슨증후군으로 8년간 투병생활을 하다 2001년에 타계했다.

4. 송건호의 언론사상

1) 언론의 독립과 민족·민주 언론

송건호는 1960년대 중반까지는 언론 현실에 대한 직접적 비판보다는 과거 언론의 ‘곡필’에 대한 역사적 평가에 주력했다. 그는 1964년에 쓴 “곡필이란 어떤 것인가”라는 글에서 “곡필일수록 ‘대국(大局)’을 논하고 ‘민족’과 ‘국가’를 걱정하고 때로는 ‘민주주의’와 ‘헌법’과 사회의 ‘안녕질서’와 ‘반공’을 내세운다”고 하며, ‘곡필’도 나름대로 사회적 근거를 갖고 있는데 “그 근거란 바로 반민주부패권력”이라고 주장했다(전집 10, 153~161쪽). 그의 이와 같은 주장은 과거부터 박정희 정권 시기에 이르기까지 언론이 권력에 굴종해 곡필을 일삼아왔다는 비판적 인식의 산물이었다. 곡필을 일삼은 언론에 대해서도 비판을 가했지만, 1960년대 중반까지 그의 언론에 대한 비판은 주로 언론탄압을 가하는 정권에 대해 집중되어 있었다¹²⁾.

그는 1964년의 ‘언론윤리위원회법 파동’을 겪으며 이미 언론의 권력에 대한 굴종에 대해서도 본격적으로 비판하기 시작했다. 그는 1964년에 쓴 “곡필이란 어떤 것인가”라는 글에서 이미 “이번 싸움에서는 언론인과 발행인이 서로 유리, 분열되었다. 일선 언론인들은 언론자유를 위해 타협 없는 싸움을 벌인데 대해서는 발행인들은 자유를 포기하고 권력 앞에 무릎을 꿇었다”고 비판한 바 있었다(전집 10, 153쪽). 그는 1960년대 말에 비판적 논조를 보이던 『경향신문』, 『조선일보』, 『동아일보』가 차례로 박정희 정권에 굴복하는 상황을 직접 겪으면서(전집 9, 188~189쪽) 당대의 언론 현실에 대해 더욱 비판적 인식을 보이기 시작했다.

그는 독일을 다녀온 후인 1969년 말에 쓴 “언론의 자유와 편집의 자주성”이라는 글에서 “참된 언론자유를 회구하려면 따라서 그 조건이 외부에만 있지 않고 기업화의 성격에서도 찾아야 한다. 오히려 언론자유를 저해하는 외부조건을 배제하거나 그것과 싸우기 위해서는 현 단계로 보아 내부조건을 지양부터 있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것을 느낀다”고 주장했다. 또한 같은 글에서 “편집의 자주성이란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먼저 제도적으로 확립되지 않으면 안 된다. 기업이 제작에 관여하는 한계는 오직 사시(社是)에 관련되는 문제에만 국한시키고 일상적 제작에서는 그 책임이 전적으로 면제되어야 하며 해방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주장하기도 했다(전집 10, 166쪽). 이런 주장에는 권력에 굴복한 신문 경영진에 대한 경험과¹³⁾ 독일에서의 ‘언론의 내적 자유’에 관한 관찰이 작용했다.

또한 그는 이미 1967년에 언론자유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보여주었다. 그는 1967년에 쓴 “신문과

12) 초기에 그는 유엔비에어에 대해 큰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이것은 권력의 언론탄압이 유엔비에어를 넣는다는 문제의식 때문이었다. 1960년대 초반에 그가 신문에 쓴 언론에 관한 글들은 다음을 참조할 수 있다(전집 17, 275~337쪽).

13) 1960년대 말에 언론인들에게 이런 인식이 상당히 널리 퍼져 있었다. 이미 1968년에 최석채는 “신문이 편집인과 기자의 손에서 떠났다”고 하며, 이제 “한국의 언론은 우리가 의식하고 있는 이상으로 경영주의 손에 의해서만 움직여지고 있다”고 주장했다(『기자협회보』1968.12.27). 여기에서 더 나아가 이상우는 “전반적인 특징은 권력이 거칠은 수단을 쓰지 않고도 신문이 스스로 권력이 원하는 방향으로 지향해 올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으며 그 환경은 신문경영과 직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일차적인 정책수단은 편집국보다는 경영진과의 관계형성에 주력되어 있다”고 주장했다(1969, 27쪽). 박권상도 1969년에 쓴 글에서 “쉽게 말해서 언론기관을 직접 소유하고 지배하는 이들이 근대 사회가 요구하는 신문이나 방송의 사명을 수행하지 못하고 그들에 부과된 책임을 외면하고 있다는 것은 결국 언론의 자유를 스스로 포기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것을 경고하고 싶다”고 주장하기도 했다(박권상, 1983, 81~82쪽).

지도기능”이라는 글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전집 10, 321~322쪽).

따라서 신생국의 자유는 ‘freedom against’에 그치지 않는 ‘freedom for’, 즉 당위적 자유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 사람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자유(복지사회 건설), 남의 나라 앞에 굴욕적으로 살지 않는 떳떳한 국가의 건설(민족주체성)을 위한 자유가 더욱 절실히 요청되는 것이다. 이러한 자유는 상태적 자유에서 일보 전진한 당위적 자유다. 상태적 자유가 소극적 자유라면 당위적 자유는 적극적 자유이며, 상태적 자유가 형식적 자유라면 당위적 자유는 구체적 자유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언론은 단지 활동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태만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러한 상황 속에서 무엇인가를 위해 일하고 싸울 것인가를 모색하는 지향의 자유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 필자는 이와 같은 자유가 곧 언론의 민족주의라고 생각한다.

그가 이러한 인식을 갖게 된 것은 단순히 권력으로부터의 자유를 얻는 것을 넘어서서, 그러한 자유가 무엇을 지향해야 하는지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했다. 송건호의 이런 주장은 ‘~로부터의 자유’라는 소극적 자유로부터 ‘~을 위한 자유’라는 적극적 자유로의 변화를 언급했던 허친스 위원회의 보고서나 이를 구체적으로 다룬 『언론의 4이론』의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 있다¹⁴⁾. 그는 1974년에 쓴 “언론자율이란 무엇인가”라는 글에서 “어느 나라나 언론자유란 상태적 자유이기보다 당위적 자유이어야 한다는 것은 긴 설명이 필요 없다. 특히 신생국·개발도상국에서 자유를 말할 때는 이 당위적 자유를 의미하여야 함은 다시 말할 것도 없다”고 주장했다(전집 10, 189~190쪽). 그가 신생국에서는 특히 당위적 언론자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던 것은, 위의 주장처럼 언론자유가 민족주의와 민주주의를 위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비롯되었던 것이다.

송건호는 이미 1969년에 쓴 “꼭필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글에서 언론이 “첫째는 민족주체意識의 존중과 양양 이것은 대외적 관계의 기사작성 때 꼭 염두에 두어야 할 점이다. 대내적으로는 크게 보아 민주주의의 발전—사회정의의 실현과 과학의 대중화에 요약될 수 있다고 본다”고 주장하며 언론의 자유가 민족주의와 민주주의에 기여해야 한다는 점을 밝힌 바 있다(송건호, 1969, 9쪽). 그의 이런 인식은 언론계를 떠나고 난 뒤인 1978년에 쓴 “상식의 길: 한 언론인의 비망록”이라는 글에서¹⁵⁾ 다음과 같이 더욱 구체화되었다(전집 8, 256~257쪽)

신생국의 언론은 사상성을 내포하는 것이 아니면 안 된다. 무엇이 옳고 그른가를 분명히 구분·인식해야

14) 박권상은 1961년에 쓴 글에서 *A Free and Responsible Press*(1947)나 *Four Theories of the Press*(1957)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다(박권상, 1983, 182~183쪽). 또한 1959년의 『신문연구』창간호에 실린 창간사에도 ‘자유롭고 책임 있는 신문’이 언급되고 있다(관훈클럽 50년사 편찬위원회, 2007, 118쪽). 이를 통해 미국에서 연수를 받고 돌아온 관훈클럽 회원들에 의해 이미 1950년대 말부터 국내에 ‘언론의 사회적 책임이론’이 비교적 널리 소개되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5) 원제가 ‘상식의 길—한 언론인의 비망록’인 이 글은 1987년에 간행된 『민주언론·민족언론』에 실려 있었고, 이 책이 그대로 『송건호 전집』 8권으로 다시 발행되었다. 『송건호 전집』에 실려 있는 이 글을 보면, 직장을 그만둔 지 12년이 되었다고 나와 있다. 이 글은 원래 한길사에서 1978년에 간행된 15인 에세이집 『어떻게 살 것인가』에 실려 있었고(김언호, 2009, 110쪽), 이 글 원문에는 직장을 그만둔 지 3년이 되었다고 나와 있다(송건호, 1978, 182~183쪽). 두 책을 비교해 보면 1987년에 『민주언론·민족언론』이 간행될 때 극히 일부만 수정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당연히 본문에 인용된 내용은 1978년의 글에도 그대로 나와 있다.

하며 옳은 것은 적극 주장하고 그른 것을 숨기지 않고 반대해야 한다. 신생국 언론일수록 고도의 사상성이 요청된다. 신생국 언론의 사상성이란 특히 민족언론을 뜻한다. 지금 우리 민족의 가장 절실한 염원은 통일이다. 통일이야말로 우리 민족이 가장 갈망하는 꿈이요 비연이다. 우리 언론은 민족통일을 지향하는 언론이 되어야 하고 그런 점에서 강한 민족의식을 가지고 민중에게 통일의식을 심어주어야 한다. 민족언론은 남북민족의 이질성보다도 동질성을 더욱 강조하며, 체제대립에서 오는 이질화는 일시적이요 민족의 동질성이야말로 본질적이라는 점이 강조되어야 한다.

민족언론은 민족의 자주·자립을 주장하며 강한 민족적 긍지와 자존심에 불타 있어야 한다. 민족언론은 온갖 사대주의·의타심을 배격하고 우리 문제는 우리 민족의 자력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당당한 자부심에 불타 있어야 한다. 한미간의 문제도 바로 이러한 사상을 가지고 논평되어야 한다. ... 신생국의 언론은 민주언론이 되어야 한다. 민족이 강한 에너지를 발휘하려면 민중이 강하게 결속해야 하며, 민중이 결속하려면 정치와 경제건설이 민주적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 나라의 부가 일부에만 편재해서는 안 되고 건설이라는 간판 밑에서 민중이 수탈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국민의 단결에는 민주주의가 불가결의 조건이다. 신생국 신문기자는 주체적 논리가 서 있어야 한다.

그의 이런 주장은 한국의 언론이 민족주의와 민주주의에 기여하고 있지 못하다는 인식을 보여준 것이었다. 그래서 한국의 언론이 민족언론·민주언론이 되어야 한다는 이런 주장은 1975년 그가 ‘동아일보 사태’를 겪고 언론계를 떠난 이후 그의 언론 현실에 대한 인식이 더욱 구체적인 성격을 지니게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¹⁶⁾. 또한 그의 이러한 주장은 1975년 『동아일보』에서 해직되었던 기자들이 결성한 동아투위가 1977년 12월 30일 조선투위와 공동으로 발표한 ‘민주민족언론선언’의 내용과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 이 선언은 “자유언론은 바로 민주언론 민족언론임을 선언한다”면서 “유한한 체제나 정권, 지배자의 언론이기를 거부하고 영원한 민중과 민족을 위한 언론을 지상과제로 삼는다”고 밝히고 있다(이부영, 1983, 336~337쪽). 송건호는 1978년에 쓴 “민족통일과 언론”이라는 글에서 언론은 남북관계의 개선을 위해 필요 이상 적대감정을 조성해서는 안 되고, 남북 간의 이질성보다 동질성을 강조해야 하며, 평화통일을 위해 남북 간의 공통점을 찾아 교류가 시작되도록 하는데 기여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주장을 하기도 했다(전집 1, 301~302쪽). 그는 언론이 민주주의를 위해 기여해야 하는 것은 어느 사회에서나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인지 언론이 한국의 특수한 상황에서 민족주의를 위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상대적으로 더 구체적인 주장을 했다¹⁷⁾.

송건호는 언론이 민족주의와 민주주의를 위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이유 중의 하나로 정권의 통제 하에 놓인 신문이 ‘객관보도’를 내세우며 진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했다¹⁸⁾. 그는 1967년에 쓴 “신문과 지도기능”이라는 글에서 “보도지는 신문이 정론지에서 대중지로 변하는

16) 한국에서 민족주의와 민주주의가 제대로 발전하지 못하게 된 역사적 배경에 대한 송건호의 분석은 1979년에서 나온 『해방전후사의 인식』에 실린 “해방의 민족사적 인식”에 잘 정리되어 있다(전집 1, 213~240쪽).

17) 송건호는 1987년에 쓴 “우리의 언론현실과 민주화의 길”이라는 글에서 “언론은 민주주의의 핵심이며 생명이다. 민주주의가 살아 있느냐 죽었느냐의 기준이 되는 척도가 바로 언론이다”라고 주장하기도 했다(전집 8, 50쪽). 그러나 정작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해 언론이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언급한 글들은 별로 없다.

18) 유선영은 “60년대 중반과 70년대 초에 한국의 언론이 현실적 문제를 타개하는 수단인 하나로 객관주의 저널리즘을 채택해 갔음”을 밝히고 있다(유선영, 1995, 112~114쪽).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갖게 되는 성격이다. 기업화-보도지-값싼 신문-이런 과정에서 신문은 오늘날에 이르렀다. 만약 시민사회의 이러한 발전과정을 무시하고 여전히 정론지적 성격을 견지한다면 그 신문은 사회의 일부로부터는 지지를 받을지 모르나 다른 계층한테서는 배척을 받게 되어 신문은 근대신문으로서 기업성을 유지하기 어렵게 될 것이다”라고 현실을 인정하는 듯한 주장을 했다(전집 10, 309쪽). 같은 글에서 그는 대중지가 되었어도 사실과 논평을 통해 신문이 어느 정도 ‘지도기능’을 발휘할 수 있기는 하지만, 한국의 경우 “문제의 중대성으로 보아 반드시 한마디 해야 할 경우일수록 많은 신문사는 태도가 흐리멍덩하고 때로는 아예 침묵을 지키고 마는 경향조차 있다”고 하며 신문이 지도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전집 10, 312쪽). 그러나 그는 1970년대 중반에 쓴 “한국 언론의 어제와 오늘”이라는 글에서는 아예 “신문에는 본래 객관보도란 있을 수 없다. 또 있어오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전집 8, 124쪽). 그는 비슷한 시기에 쓴 “신문과 진실”이라는 글에서 “가장 정확하고 올바른 보도일수록 기사가 이른바 객관적이기보다 오히려 훌륭한 의미에서 주관적이기 때문이다. … 가장 정확한 보도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실일수록 진실을 전달하려면 오히려 고도의 주관적 보도를 통해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깨닫지 않으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전집 8, 112~113쪽). 그는 객관보도의 미명하에 진실을 왜곡하는 언론을 비판했던 것이다.

또한 그는 이제 ‘민주언론·민족언론’을 위해서는 언론의 독립이 필요하다고 더욱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그는 1978년에 쓴 “상식의 길-한 언론인의 비망록”이라는 글에서 “나는 근래 ‘언론자유’라는 말을 가급적 사용하지 않는다. 언론자유를 주장하는 사람들을 마치 법도 국가도 민족도 돌보지 않고 자유만 내세우는 사람들처럼 몰아붙이는 층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언론자유라는 말보다도 ‘언론의 독립’이라는 말을 쓴다”고 했다(전집 8, 250쪽). 그는 1979년에 쓴 “언론의 독립과 자유”라는 글에서 같은 맥락의 주장을 하고 있다. 그는 “언론엔 무제한의 자유를 줄 수 없는 것이고 또 자유의 폭이 넓으면 그만큼 방종에 흐르는 언론이 일부 생기는 것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언론의 방종을 내세우는 사람들은 만약 언론의 독립-자유가 권력에 의해 억압당할 경우 그로부터 생기는 사회의 무서운 해악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는 것이 상례다. 언론의 자유가 빚기 쉬운 일부 방종도 걱정스러운 일이지만 언론이 권력의 탄압으로 제구실을 못할 때 생기는 사회의 혼란은 더욱 가공할 결과를 빚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전집 9, 341쪽). 언론의 자유를 방종으로 바라볼 것을 염려해 언론의 독립이라는 말을 쓰지만, 정작 방종보다는 여전히 권력의 언론탄압이 더 큰 문제라는 것이다. 나아가 1979년에 쓴 같은 글에서는 이미 권력으로부터는 물론 자본으로부터도 독립되어 있지 않은 언론의 현실을 다음과 같이 비판하고 있다(전집 9, 348~349쪽).

언론기업이 권력과 결탁하고 특혜로 막대한 재정지원을 받는다면 또는 권력을 배경으로 재벌을 형성해 많은 기업에 손을 대 하나의 그룹을 형성한다면 언론기업의 독립성은 이미 상실되고 따라서 언론자유는 침해되고 만다. 이렇게 권력과 결탁한다면 재벌의 한 계열기업으로 전락한다면 신문은 이미 자기 소리를 하지 못하게 된다. 권력의 앞잡이로 타락하고 만다. 언론기업이 권력에 예속되어 기업의 독립성을 상실하게 되면 그들은 권력과의 결탁으로 이윤을 올리려고만 생각하고 언론자유 같은 것은 전혀 원하지 않게 된다. 이러한 신문사 간부들은 언론자유를 주장하는 기자들을 오히려 적대시하고 그들을 신문사에서 추방하고 만다. 이런 언론기업인은 이미 언론인의 탈을 쓴 언론의 역적으로 전락된 것이다.

송건호는 이제 권력과 자본에 의해 통제받는 언론의 기업인은 ‘언론인의 탈을 쓴 언론의 역적’이라고

까지 비판하기에 이르렀다. 그는 1980년에 쓴 “신문의 자유와 책임”이라는 글에서 “언론이나 교육사업이라는 것은 그 사업 자체에 막중한 국가의 공공성이 있기 때문에 기업시(企業視), 사물시(私物視)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며, 권력과 자본에 예속된 언론기업을 비판했다(전집 10, 115쪽). 한편 같은 해 쓴 “분단하의 민족언론”이라는 글에서는 “앞으로 이 땅의 언론은 국제냉전의 하수인으로서가 아니라 자기 민족의 생존을 위해 보다 민족이익에 용감해야 한다. 그리고 남북이 잘라져 36년간 이데올로기가 다르고 체제가 달라도 우리는 같은 민족이며 따라서 동질성은 본질적이고, 이질화는 일시적이고 표면적이며 부분적이라는 민족 본래의 자각을 민중 속에 불어넣어야 한다”고 하며 통일을 위한 언론의 역할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전집 10, 110쪽). 1980년 ‘서울의 봄’을 맞아 그는 언론이 권력과 자본으로부터 독립해 민족의 이익에 부합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던 것이다¹⁹⁾.

1980년대에 들어서서 그는 기업적 성장에만 몰두하는 언론에 대해 더욱 날카로운 비판을 가했다. 그의 비판은 1980년대 들어서서 권력과의 유착을 통해 언론이 급격히 성장하고 이윤을 확대해가던 현실과 관련이 있었다(김해식, 1994, 250~252쪽). 그는 1984년 에 쓴 “제도언론에서 독립언론으로”라는 글에서²⁰⁾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대목은 언론이 이같이 자유와 독립성을 잃게 된 것은 그 책임이 전적으로 권력당국의 억압과 규제에 의해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과, 또 언론기업이 권력당국과 유착하여 언론기업 스스로가 언론의 자유를 적대시하는 기현상을 보여주었다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전집 8, 62쪽). 그의 이런 견해는 이미 1970년대 중반에 쓴 “한국기자상의 어제와 오늘”이라는 글에서도 잘 드러난다(전집 8, 217~218쪽).

이러한 결과 생긴 또 하나의 기현상은 자유언론과 권력의 대결이라는 어느 나라에서나 볼 수 있는 형식이 우리나라에서는 자유언론과 언론기업의 대결이라는 형식으로 변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언론기업이 언론자유 의 신장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언론자유를 때려잡기 위해 존재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만약 편집국에 언론자유가 어찌니 저찌니 하는 기자라도 생기면 권력당국에서 어떤 조치를 취하기도 전에 그 기자를 그냥 두지 않을 것이다. 언론은 자유롭고 독립적이어야 한다는 저널리즘에서는 거의 상식이 되어 있는 이 명제가 오늘날 이 땅의 언론계에서는 그 이상으로 불온하고 위험한 구호가 없는 것처럼 터부시되어 있다. 기업주 측에서는 혹 언론자유를 입에 올리는 ‘불온한’ 기자라도 없는가 하여 경계의 눈을 번득이고 있는 것이 숨길 수 없는 현실이다. 이 땅의 언론계에서 자유언론을 위한 투쟁이 권력당국 아닌 기업주와의 대결형식으로 나타나게 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는 1980년대에 권력과 더욱 강하게 유착해 기업적 성장에만 몰두하는 언론을 비판하며, 더욱 강력하게 언론의 독립을 주장했다. 그는 1980년대에 쓴 “한국 언론의 정통성”이라는 글에서 “독립성을 상실한 언론은 일관성이 없으며 안정 아닌 불안, 발전 아닌 파괴를 조장하게 된다. 언론이 예속언론 아닌 독립언론으로 나아가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주장했다(전집 8, 229~230쪽). 또한 1982년에 쓴 “합석헌과 언론”이라는 글에서는 “언론기업을 살리는 길이 언론의 독립을 수호하는 것과 상극이

19) “신문의 자유와 책임”은 『기자협회보』1980년 4월 25일자에 실렸고, “분단하의 민족언론”은 『대학신문』1980년 4월 7일자에 실렸다. 두 글 모두 ‘서울의 봄’의 분위기를 반영하고 있었다.

20) 전집에 실려 있는 글들 중에 일부는 원래 글의 출처가 안 밝혀져 있는 것은 물론 때로는 원래 글의 제목까지 바꿔놓아 출처를 찾기 어려운 경우도 적지 않다. 전집 8권에 “제도언론에서 독립언론으로”라는 제목으로 실려 있는 글은, 원래 1984년에 발행된 『민중과 자유언론』에 “언론의 방향”이라는 제목으로 실려 있었다.

되어 기업주에 따라서는 언론자유나 언론의 독립 같은, 언론의 사명에 충실한 기자들을 명색 언론기업 주라는 자들이 앞장서서 물리치는 예가 없지 않게 된 것이 우리가 볼 수 있는 일부 신문들의 현실이다”라고 주장하기도 했다(전집 11, 333쪽). 나아가 그는 1980년대에 쓴 “1970년대의 언론”이라는 글에서 “언론이 제 구실을 하려면 언론기업의 독립이 절대불가결한 대전제가 된다. 기업의 독립이란 타 기업으로부터의 독립이요, 정치적 압력으로부터의 독립이다. 이 두 가지 방면에서 독립을 확립하고 있어야만 신문은 독립된 자기 소리, 즉 언론자유를 누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전집 8, 238쪽). 결국 그는 언론이 권력과 자본으로부터 독립되어야만 민족주의와 민주주의를 위한 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주장을 했던 것이다.

2) 언론인의 탈기능화와 이념지향적 언론인

송건호는 일찌감치 한국 지식인의 특성에 대해 관심을 표명했다. 그는 1964년에 쓴 “민족지성의 반성과 비판”이라는 글에서 1960년대에 들어서서 한국사회에는 이념형 지성인 ‘방향지’가 퇴조하고, 기능형 지성인 ‘사실지’가 득세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즉, 서구사회와 마찬가지로 한국사회에서도 지식인이 각종 직종으로 분화되어 일종의 기술자화 되는 현상이 두드러지고, 이런 ‘지성의 기능화’는 주어진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해나가는 테크닉에만 관심을 기울이게 만들고, 주어진 일이 옳으나 그러나 하는 가치판단에는 소홀하게 만든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그는 이런 지적 풍토가 ‘아메리카사상’의 압도적 영향을 받아 형성되었다고 주장했다(송건호 전집 6, 185~209쪽). 그의 이런 주장은 뒤에 언론인에 대해서도 그대로 적용된다.²¹⁾

그는 1967년에 쓴 “신문과 지도기능”이라는 글에서 “지금 한국 언론인들은 신문의 자유와 책임을 주장하면 그것으로 족하고 언론인으로서 책임과 윤리에 투철하면 훌륭한 신문인으로서 손색이 없는 것이라고 믿고 있다. 언론의 전통이 저항 속에 빛나고 있으니 이제 책임감을 느끼게 될 단계도 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전집 10, 320쪽). 그러나 그는 1971년에 쓴 “선거와 보도”라는 글에서 “신문에 대한 독자 대중의 뿌리 깊은 불신은 일부 논자가 말하듯 지난날의 저항정신에서 아직 탈피하지 못한 때문에 생긴 것이라기보다 언론의 책임이 자유가 뒤따르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강조되고 있는 데 원인이 있지 않은가 보여진다”고 주장했다(송건호, 1971, 3쪽). 그의 주장은 저항적 전통 속에 있던 언론이 권력에 굴복한 것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기보다는 언론인의 개인적 차원의 윤리나 책임을 더욱 강조하기 시작한 당시 일부 언론인들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²²⁾. 즉 그는 언론의 책임이 왜 필요한지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던 언론인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했던 것이다. 그래서 송건호는 1969년에 쓴 “비평의 논리”라는 글에서 “그러므로 훌륭한 언론인이

21) 송건호가 일찌감치 주장했던 지식인의 분화에 대한 논의가 1960년대 중반을 넘어서면서 활발해졌다. 그중 김영모는 지식인을 ‘사회기사’(social engineer)로서의 지식인과 ‘이념지향적’ 지식인으로 나누었고, 다른 필자들도 지식인의 유형을 나누며 ‘비판적 참여 지식인’의 역할을 강조했다(강수택, 2001, 116~125쪽).

22) 송건호가 직접 관훈클럽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그의 이와 같은 비판은 당시 언론의 책임을 강조하며 활발하게 활동했던 관훈클럽이 주된 대상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는 1961년에 관훈클럽에 가입하기는 했지만, 1960년대 이후 내내 관훈클럽과는 일정한 거리를 두고 활동했다. ‘진보적 민족주의자’였던 그로서는 ‘친미적인 언론인’ 집단이라는 평가를 듣던(이영희·임현영, 2005, 210쪽) 관훈클럽의 활동에 대해 동조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미국연수를 다녀 온 기자들의 모임”이라는 외부의 시선을 염려해서인지, 관훈클럽 스스로도 그 무렵 “절대로 버터 냄세를 피워서는 안 된다”는 ‘묵시적인 경계심’을 갖고 활동했다고 한다(정범준, 2007, 49쪽).

되려면 먼저 무엇이 정론이며 무엇이 꼭필인가부터 식별할 줄 알아야 하고 나아가 정론에 입각한 논설과 보도를 전개할 수 있는 수준 높은 사상을 지니지 않으면 안 된다. 언론인이 참된 언론인이 되려고 할 때 한 사람의 사상가이자 예술가가 돼야 한다는 소리가 여기에 있다 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전집 10, 282쪽). 그는 1970년에 쓴 “지식인의 주체적 자세”라는 글에서 다음과 같이 ‘대기자’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전집 6, 81쪽)

바람직한 지식인은 단지 이것저것을 많이 아는 ‘사실지’에 그치지 않고 한 차원 올라서서 전체를 파악하고 전체가 향하고 있는 방향을 파악하는 ‘방향지’를 갖추지 않으면 안 된다. 언론계에는 대기자를 아쉬워하는 소리가 절실하다. 언론계가 바라는 대기자는 결코 한 문제에 조예가 깊은 전문기자를 두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다. 시대를 내다볼 줄 아는 철학적 기자의 출현을 대망하는 것이다. 오늘의 시대는 실로 그러한 지식인을, 그러한 언론인의 출현을 바라고 있다.

또한 그는 1973년에 쓴 “직업으로서의 언론”이라는 글에서 “기자의 활동에도 일관성이 있어야 하고 지조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는다. 언론인의 순수성이란 일관성을 지키는 일이며 이 일관성이 지조와 연결된다는 점에서 결국 기자의 윤리문제라는 결론이 나온다. 현대사회에서 지조는 인간관계의 문제로서보다 어떠한 이념이나 원칙에 대한 충성심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전집 10, 234쪽). 이런 그에게 지조를 지키지 못한 언론인들은 비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다. 그는 1980년대에 언론인에 대한 각종 특혜가 주어지고 언론인이 정치인으로 변신하는 일이 많아지자, 1980년대에 쓴 “한국언론의 정통성”이라는 글에서 “언론인들이 행정부에 대량 기용되는 새 현상이 생겨 언론계는 마치 관계 진출의 발판 아니면 대기소와 같은 인상을 주어 행정부에 인사이동 바람이 불 때마다 편집국은 흑시 나에게도 어떤 ‘소명’이 없나 해서 좌불안석하는 개탄할 풍토까지 생기게 되어 오늘날 언론계는 팔리다 남은 찌꺼기의 쓰레기통처럼 됐다는 자탄의 소리가 현역의 입에서 흘러나오게 됐다”고 비판했다(전집 8, 228쪽). 또한 1987년에 쓴 “우리의 언론현실과 민주화의 길”이라는 글에서도 “출세하고 싶은 사람은 모름지기 신문기자부터 하라고 권하고 싶다. 신문기자는 위에서 밝혔듯이 그같이 온갖 특혜 속에 살고 있으면서도 신문사에 남아 있는 것을 수치로 아는 풍토조차 생겼다. 똑똑한 기자는 모두 한자리씩 차지하고 쓰레기들만 있다. 팔리지 않고 언론계에 남아 있다는 생각이 기자들 사이에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고 하며 언론인의 정관계 진출을 비꼬았다(전집 8, 39쪽).

또한 송건호는 1970년대 중반에 쓴 “한국언론의 어제와 오늘”이라는 글에서 “신문기자가 옳고 그르고를 판단하고 따지는 것은 바람직한 태도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리하여 오늘날 신문기자들은 일종의 기술자에 지나지 않게 되었으며 기자로서 뚜렷한 사상이나 이념을 가지고 언론활동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다만 사실보도에 충실하면 그것으로 족하다는 사상이 지배적이 되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같은 글에서 그는 “탈사상적인 한낱 기능인으로 자기를 인식하게 될 때 기자들은 주어진 현실이 바람직한 상황이든 아니든 현실에 아무런 고민이나 갈등을 느끼지 않고 쉽사리 적응하게 된다”고 비판했다(전집 8, 124~125쪽). 이렇듯 송건호는 언론인이 나름의 사상을 갖지 못하고 기능인화 되는 것에 대해서 강력한 비판을 가했다.

그는 1978년에 쓴 “상식의 길—한 언론인의 비망록”이라는 글에서 “객관주의에 의한 언론은 주관울

배제하므로 언론이 기능화하여 언론에서 사상성이 배제되고 수단화·도구화되어 언론은 필요에 따라 어떠한 사회세력에도 봉사할 수 있는 한낱 테크닉으로 화한다. 언론의 도구화는 언론인의 샐러리맨의 식과 상승작용을 일으켜 요즘 많은 언론인들이 철저히 사상성이 결여된 기능인이 되었다”고 비판했다(전집 8, 256쪽). 또한 1982년에 쓴 “저널리즘과 휴머니즘”이라는 글에서는 “이 객관주의가 제3세계의 민족언론을 잠식하는 무서운 무기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객관주의에 물든 언론인일수록 몰이념·몰민족적이며 주어진 정치적 여건에 순종하고 봉사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우리들이 주지하고 있는 바와 같다”고 주장했다(전집 8, 75~81쪽). 그는 이른바 객관주의가 언론인의 기능인화와 긴밀한 관계가 있다고 주장했던 것이다.

그는 1984년에 쓴 “제도언론에서 독립언론으로”라는 글에서 “언론인이 기능인으로 만족할 수는 없다. 언론인은 누구에 예속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오로지 국가와 국민의 대변자가 되어야 하며 어떤 이익단체나 정치단체에도 예속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전집 8, 67~68쪽). 그는 1970년대 중반에 쓴 “한국 기자상의 어제와 오늘”이라는 글에서 이미 다음과 같이 주장한 바도 있었다(전집 8, 220쪽).

지금까지의 기자들은 보다 더 상대적 자유를 주장하는 면이 강했던 만큼 기사를 쓰는 솜씨, 편집을 하는 솜씨로 말하자면 유능한 기술자면 족했다. 지금까지의 신문기자는 일종의 테크니션이면 충분했다. 그러나 이념지향적·가치추구적 자유를 위해 노력하는 기자는 이미 테크니션만으로는 안 된다. 사회를 옹기 보고 인식할 수 있는 훌륭한 사회과학도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 ‘상대적 자유’는 서구 선진자본주의 국가의 언론자유 개념이나 신생국 언론인의 자유가 될 수 없다. 신생국의 언론인은 나라의 참된 자주, 말만이 아닌 진정한 자주란 무엇이며, 민족문화와 매관문화의 식별은 어떻게 할 것이며, 예속경제 아닌 자립경제란 무엇이며, 개인의 자유와 민족의 자유는 어떤 상관관계에 있으며, 신생국에서의 정치적 자유란 무엇이며, 이러한 나라에서 왜 민권과 휴머니즘이 존중되어야 하는가, 그리고 강력정치와 강권정치의 식별, 여론과 통제 등 선진국에서 보기 힘든 신생국만이 가지고 있는 숭한 문제점과 고민들을 안고 있다.

송건호는 한국의 현실에서 언론인들은 기능인이자 기술자의 지위에서 벗어나 ‘이념지향적·가치추구적 자유를 위해 노력하는 기자’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는 기능인이 된 언론인들은 권력과 자본에 쉽게 굴복하고 봉사하는 존재가 된다는 점도 강조했다²³⁾. 언론인이 권력과 자본에 굴복하지 않기 위해서도 탈기능인화가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그는 1970년대 중반에 쓴 “한국 기자상의 어제와 오늘”이라는 글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하기도 했다(전집 8, 217~218쪽).

일제시대의 기자는 지사형이라는 말이 있었다. 단순한 신문기자가 아니라 민족의 독립을 위한 항일독립투사로 생각되었고 또 그렇게 자처했다. 8·15해방 후에는 이 지사형이 약간 변하기는 했으나 그래도 기자들의 생활은 타산적이기보다 선후배관계가 엄격했고 기본에 따라 호음하며 쪼쪼하게 가정에 얽매어 사는 생활인형이 아니었다. ... 일제시대의 지사형에서 그 정신면이 없어진 대신 외형만 남은 생활을 했다고 할까, 이래서 8·15해방 후 한 10년간의 기자생활은 오히려 방탕한 현상을 보여주었다고 할 수도 있다. ... 그러나 신문이

23) 실제로 1960년대 말부터 많은 언론인들이 정치적 충원의 대상이 되어 관계나 정계로 진출했다(이강석, 2001). 송건호는 바로 이런 현실을 보며 언론인이 기능인화 되었기 때문에 쉽게 변신할 수 있었다고 비판했던 것이다.

기업으로 시설 면에서나 심리적인 면에서 크게 변한 오늘날은 기자들의 생활에도 큰 변화가 나타났다. 가장 두드러진 현상이 아마 기자들의 샐러리맨화일 것이다. 오늘날의 기자는 이미 지사도 낭만인도 아니다. 아주 타산적으로 변한 것이다.

송건호는 언론인이 ‘이념지향적·가치추구적’ 성향을 지녀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그렇다고 구한말 이래의 ‘지사형’ 언론인을 무조건 바람직한 언론인상이라고 주장하지는 않았다. 그는 이미 1973년에 쓴 “직업으로서의 언론”이라는 글에서 “역사의식에 투철하다는 것은 동시에 사회과학적 의식에 투철하다는 것”이라고 하며, 역사의식에 기반을 둔 사회과학적 지식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도 있었다(전집 10, 232쪽). 또한 그는 1970년대 중반에 쓴 “한국 기자상의 어제와 오늘”이라는 글에서 “이러한 이념지향적 언론인이 되기 위해서는 테크니션으로 훌륭한 언론인이 되기 이전에 사회과학도로서 사회를 과학적으로 인식하고 논평할 수 있는 신념의 언론인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전집 8, 217~218쪽). 나아가 그는 1978년에 쓴 “상식의 길—한 언론인의 비망록”이라는 글에서 “민족언론은 사회과학적 이론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 사회과학이 바탕이 된 언론만이 민족의 현실을 옳게 인식할 수 있고 옳은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된다. 언론인은 이런 점에서 사회과학 연구에 적극적이어야 하고 훌륭한 의미의 사상가가 되어야 한다. 신문기자라고 해서 한낱 기능인으로서 어느 때는 이런 글을, 또 어느 때는 저런 글을 쓰는 대서소 서기와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전집 8, 257쪽). 그는 언론인이 사상성을 갖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사회과학적 안목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던 것이다.

그는 더 나아가 1978년에 쓴 “상식의 길—한 언론인의 비망록”이라는 글에서 “신문기자란 결코 한낱 기능적이 아니다. 신문기자는 민족주의자며 민주주의자며 따라서 그들은 다른 어느 지식인보다도 민중을 지도하는 사상가로서 자부심과 책임감을 갖지 않으면 안 된다. 오늘날 너무 많은 기자들이 스스로를 한낱 기능적으로 비하하며 민중을 저버린 현실추종자로 유유낙낙하고 있음은 개탄해 마지않을 일이다”라고 비판했다(전집 8, 258쪽). 또한 1984년에 쓴 “한국언론의 어제와 내일”이라는 글에서도 “신문기자는 언론인으로서 한 시대의 양심의 등불로서 민족과 민주 언론인으로서, 양식 있는 활동을 할 수 있는 의식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전집 9, 270쪽). 그는 민족주의와 민주주의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언론인이 사상가적 지향과 사회과학적 안목을 갖춘 이념지향적 언론인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던 것이다.

5. 맺는 말

송건호가 “술 마시고 호기나 부리고 기업을 토하”면서도 “제 몸의 영화만을 위해 거개가 권력과 야합”을 했던 비슷한 연배의 다른 언론인들과는 다른 삶의 역정을 보였던 만큼(이호철, 1986, 16~17쪽) 그의 언론 현실에 대한 인식과 비판도 다른 언론인들과는 차별화될 수밖에 없었다. 그는 비슷한 연배의 다른 언론인들이 권력과 자본에 굴복한 언론의 현실을 애써 외면하거나 아니면 아예 이런 언론을 발판으로 출세를 꿈꿀 때²⁴⁾, 이런 언론 현실에 온몸으로 맞서 잘못된 현실을 개혁하고자 노력했었다. 이런 그의 삶은 그대로 그의 언론 현실에 대한 인식과 비판으로도 나타났다. 1964년부터

본격화된 그의 언론현실에 대한 비판적 인식은 1975년에 언론계를 떠나면서 더욱 심화되어갔다.

그는 1960년대 이후의 언론 현실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언론이 권력과 자본에 예속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예속에서 벗어나 언론의 독립을 이루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주장했다. 그는 여기에 머무르지 않고 더 나아가 독립을 쟁취한 언론은 곧 민족주의와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한 수단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그는 언론의 독립을 통해 민족언론과 민주언론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던 것이다. 특히 그는 언론이 민족주의에 입각해 활동해야 하고, 통일을 위해 기여하는 활동을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그는 1960년대 이후 언론인이 기능인화, 샐러리맨화 되어서²⁵⁾ 언론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언론인이 쉽게 지조를 버리는 현실을 보며 언론인이 탈기능인화 되고 사상가적 자질을 갖추는 것이 급선무라고 주장했다. 언론인에게 역사적 맥락에서 옳고 그름을 판단할 줄 아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더 나아가 그는 언론인이 사회과학적 지식과 안목을 가질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그는 언론인에게는 폭넓은 사회과학적 지식을 기반으로 하여 논리적 분석을 하는 능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았기 때문이다²⁶⁾.

그는 ‘전통적 언론인상’인 지사적 기자나 ‘근대적 언론인상’인 전문직으로서의 기자에 대해 모두 그 가치를 어느 정도 인정하면서도 비판적인 인식을 갖고 있었다. 1960년대에 들어서서 기존의 ‘지사적 기자상’의 경우 잘못된 현실에 대한 저항적 정신이라는 본질적 가치는 사라지고 낭만적 분위기만 남았을 뿐이고, ‘전문직으로서의 기자상’은 언론의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눈감고 개인적 차원의 윤리나 책임만 강조한다는 것이었다. 물론 지조를 버리고 정계나 관계로 진출한 언론인에 대해서는 더욱 혹독한 비판을 가했다. 송건호는 언론의 역할이나 언론인의 특성에 대한 인식에서도 지사주의나 전문직주의의 틀을 넘어서고 있다²⁷⁾. 그는 한국적 언론 현실을 감안해, 지사적 전통으로부터는 ‘비판 정신’을 이어받고 전문직주의로부터는 ‘사회과학적 지식’의 필요성을 수용했던 것이다.

실제 한국 언론의 현실은 적어도 겉으로는 ‘미국모델’에 가깝게 변화되어 갔지만, 언론의 역할이나 언론인의 특성에 대한 그의 인식은 대체로 ‘유럽모델’에 가까웠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가 생각한 언론의 역할이 언론의 기능을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객관적인 사실을 균형있게 전달하는

24) 관훈클럽 계통의 인물 중 적지 않은 수가 언론을 굴복시킨 권력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응하거나 다른 곳으로 눈길을 돌렸다면, ‘근대화 과정에서의 언론(인)의 역할’을 앞세운 상당수 인물들은 직접 권력의 하수인이 되었다. 이들은 근대화를 촉진시키기 위한 언론인의 역할을 강조하며(김규환, 1966) 자신들의 권력 참여를 정당화했다.

25) 언론인의 ‘샐러리맨화’는 거의 대부분 부정적인 의미를 함축하고 있었다. 과거의 지사주의적 전통으로부터 일탈했고, 전문직으로서의 정체성이나 노동자적 자각을 갖지도 못한 언론인들을 가리킬 때 주로 사용되었다는 것이다(이정훈·김군, 2006). 특히 언론기업의 구조적 통제에 순응하며, 자신의 이익에만 민감하다는 의미를 지니는 경우가 많았다.

26) 그가 깊이 있는 역사적식과 폭넓은 사회과학적 지식을 갖춘 ‘논객’류의 기자를 이상적인 기자로 보았던 것은 분명히 그의 언론현실 전반에 대한 비판적 인식의 산물이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외신부에서 근무하다가 바로 논설위원이 되어 일선 취재 경험이 전혀 없던 그가 취재부서 기자들의 잘못된 관행을 비판적으로 바라보았다는 점도 어느 정도 작용했을 것이다.

27) 그는 서중석과의 대답에서 “선생님의 글은 지사풍에 가까운데”라는 질문에 대해 “그것은 판단하는 사람의 자유겠지요. 그러나 나는 어디까지나 언론인이자 지사는 아닙니다”라고 답변했다(송건호·서중석, 1992, 260쪽). 또한 그는 “나는 언제나 기자다. 어떤 정치권력파도 관련되지 않는다”고 하며, “언론인이 어느 한쪽에 소속되면 그의 생명은 끝장난다”고도 주장했다(김인호, 2009, 109쪽). 그는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정치적 활동에 참여하지 않고 끝까지 언론인으로 남고자 했다는 점에서 민족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전통적 의미의 지사적 언론인들과는 다소 달랐다고 할 수 있다.

데 중점을 둔 ‘미국모델’은 물론 정당과의 강한 연계에 근거하고 있어서 이념적, 정치적 지향성이 강한 것이 특징인 ‘유럽모델’과도 완전히 부합되는 것은 아니었다. 다만 한국적 현실을 감안해 민족주의나 민주주의를 지향한 것이기는 했지만, 언론의 지도기능을 강조했다는 점에서는 유럽모델과 다소 비슷한 면이 있었다. 또한 그의 언론인의 특성에 관한 주장도 객관보도를 위한 훈련과 특정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강조하는 미국모델보다는 폭넓은 지식을 바탕으로 문필가적 활동을 지향하는 유럽모델과 상당히 유사한 면을 보인다.

송건호 언론사상의 핵심은 언론이 권력과 자본으로부터 독립해 민족주의와 민주주의에 기여해야 하고, 언론인이 기능적 역할만을 하는 것을 넘어서서 역사의식과 폭넓은 사회과학적 지식을 갖추고 활동해야 한다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다. 민족주의와 민주주의를 위해 때로는 자신을 희생해야 하는 ‘역사의 길’을 걸었던 그의 언론사상은 또 다시 언론의 독립이 위태롭고 언론인의 기능인화가 드러나는 현재의 언론 현실에서도 여전히 유효하다. 그의 언론사상을 살펴봄으로써 언론이 여전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민족주의와 민주주의를 위해 제 역할을 다하도록 하는 것은 물론 언론인이 새로운 미디어 환경의 변화 속에 바람직한 자세를 찾아가도록 하는 데도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즉, 분단 현실에서 민족주의와 민주주의를 위한 언론의 역할을 성찰하고, 다매체다채널 시대 속에 깊이 있고 다양한 의견을 제공할 수 있는 언론인의 양성을 고민하기 위해서 송건호의 언론사상을 살펴보는 것은 큰 의미를 지닌다는 것이다.

Ⅰ 참고문헌

- 강명구 (1993). 『한국 언론전문직의 사회학』. 서울: 나남.
- 강수택 (2001). 박정희 정권 시기의 지식인론 연구. 『사회와 역사』, 59호, 111~144.
- 관훈클럽 50년사 편찬위원회 (2007). 『관훈클럽 50년사』. 서울: 관훈클럽.
- 김규환 (1961). 한국 저널리즘의 석금. 서울대학교 신문대학원 동창회 엮음(1999), 『저널리즘과 아카데미즘의 교차로에서—남정 김규환 박사의 학문과 실천』(155~165쪽). 서울: 한길사.
- 김규환 (1966). 매스컴 활동을 통한 근대화 과정에서 지식인의 역할. 서울대학교 신문대학원 동창회 엮음(1999), 『저널리즘과 아카데미즘의 교차로에서—남정 김규환 박사의 학문과 실천』(209~221쪽). 서울: 한길사.
- 김삼웅 (2011). 『송건호 평전』. 서울: 책으로 보는 세상.
- 김인호 (2007). 책의 탄생, 시대의 풍경 ⑦—고단한 시대, 늘 희망을 말했던 송건호.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408427
- 김인호 (2009). 『책의 공화국에서』. 서울: 한길사.
- 김영희·박용규 (2011). 『한국현대 언론인열전』.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 김해식 (1994). 『한국 언론의 사회학』. 서울: 나남.
-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2005). 『자유언론: 1975~2005 동아투위 30년 발자취』. 서울: 해담술.
- 박권상 (1983). 『자유언론의 명제』. 서울: 전예원.
- 박홍원 (2011). 편집권 독립과 언론의 자유. 『언론과학연구』, 11권 1호, 123~156.
- 송건호 (1969). 곡필의 사회적 책임. 『신문평론』, 1969년 6월호, 6~9.
- 송건호 (1971). 선거와 보도. 『신문평론』, 1971년 4월호, 2~5.
- 송건호 (1978). 상식의 길—한 언론인의 비망록. 김수환 외, 『어떻게 살 것인가』(181~194쪽). 서울: 한길사.

- 송건호 (1979). 『소크라테스의 행복』. 서울: 동광출판사.
- 송건호·서중석 (1992). 송건호, 형극으로 지켜 온 언론자유와 현대사 개척. 『역사비평』, 21호, 241~260.
- 송건호 (2002). 『송건호 전집』1~20. 서울: 한길사.
- 유선영 (1995). 객관주의 100년의 형식화 과정. 『언론과 사회』, 10호, 86~128.
- 이부영 (1983). 70년대의 한국 사회와 언론. 『언론과 사회』(280~349쪽). 서울: 민중사.
- 이상우 (1969). 『한국신문의 내막: 상업주의 신문의 정체』. 서울: 삼성사.
- 이영희 (1988). 『이영희 자전적 에세이: 역정』. 서울: 창작과 비평사.
- 이영희·임현영 (2005). 『대화』. 서울: 한길사.
- 이정훈·김균 (2006). 한국 언론인의 직업 정체성-샐러리맨화의 역사적 과정을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50권 6호, 59~88.
- 이호철 (1986). 청암 송건호론. 『청암 송건호선생 화갑기념문집』(3~20쪽). 서울: 두레.
- 임영호 (2007). 언론인의 직업모델과 전문성 문제. 『민주화 이후의 한국언론』(233~281쪽). 서울: 나남.
- 장은미 (2006). 『1950년대 한국 신문의 남성적 재공간화 과정』. 서강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정범준 (2007). 『이야기 관훈클럽』. 서울: 랜덤하우스코리아.
- 정지아 (2008). 『나는 역사의 길을 걷고 싶다』. 서울: 한길사.
- 주동황 (1993). 『한국정부의 언론정책이 신문산업의 변천에 미친 영향에 관한 일고찰』.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천관우 (1971). 언론인으로서의 단재. 『나라사랑』, 3집, 28~35.
- 최이숙 (2009). 『산업화시기(1961~1987) 성별화된 뉴스생산노동과 여성언론인의 정체성 관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한겨레 20년 사사 편찬위원회 (2008). 『희망으로 가는 길: 한겨레 20년의 역사』. 서울: 한겨레신문사.
- Carey, J. W. (1969). The Communication Revolution and the Professional Communicator. In P. Halmos (Ed.) *The Sociological Review Monographs. No.13: The Sociology of Mass Media Communicator*. 23~38.
- Curran, J. (1979). Capitalism and Control of the Press, 1880~1975. In J. Curran, M. Gurevitch and J. Woollacott. (Eds.), *Mass Communication and Society*. (pp.109~146). Beverly Hills: Sage.
- Dicken-Garcia, H. (1989). *Journalistic Standards in Nineteenth-Century America*. Madison: The University of Wisconsin Press.
- Fedler, F. (2000). *Lessons from the Past: Journalists' Lives and Work, 1850~1950*. Prospect Heights, Illinois: Waveland Press.
- Habermas, J. (1987). *The Structural Transformation of the Public Sphere*. (T. Burger Trans.). Cambridge: The MIT Press. (Original work published 1962)
- Hallin, D. C. (1985). The American Mass Media: Critical Theory Perspective. In J. Foster (Ed.) *Critical Perspective and Public Life* (pp.121~146). Cambridge: The MIT Press.
- Hart, D. J. (1980). Changing Relations between Publishers and Journalists: An Overview. In A. Smith (Ed.), *Newspaper and Democracy* (pp.268~287). Cambridge: The MIT Press.
- Mancini, P. (2005). Is There a European Model of Journalism? (pp.77~92). In H. de Burgh (Ed.), *Making Journalists: Diverse Models, Global Issues*. London: Routledge.
- Nerone, J. C. (1987). The Mythology of the Penny Press. *Critical Studies in Mass Communication*, 4, 376~404.
- Schiller, D. (1979). An Historical Approach to Objectivity and Professionalism in American News Reporting. *Journal of Communication*, 29(4), 46~57.

Schudson, M. (2005). The U. S. Model of Journalism: Exception or Exemplar?. (pp.94~105). In H. de Burgh (Ed.), *Making Journalists: Diverse Models, Global Issues*. London: Routledge.

Smith, A. (1979). *The Newspaper: An International History*. 최정호 · 공용배 역(1990). 『세계 신문의 역사』. 서울: 나눔.

Tunstall, J. (1974). *Journalist at Work*. Beverly Hills: Sage.

(투고일자: 2012. 6. 18, 수정일자: 2012. 7. 18, 게재확정일자: 2012. 7. 20)

ABSTRACT

Gun-Ho Song's Journalistic Activity and Thought of the Press

Yong-Gyu Park*

Gun-Ho Song had been selected as 'the most respected person' in a survey targeting journalists. While being a journalist, Gun-Ho Song had directly experienced that the press submitted to government suppression and became commercialized receiving government benefits. In 1975, when *Dong-A Ilbo*(*Daily News*) submitted to the government suppression and conducted a mass of discharge of journalists, he felt responsibility and left the newspaper company. After that, he criticized more sharply the media subordinated to the power and capital. The core of Gun Ho Song's thought of the press is that the media should be independent from the power and capital contributing to nationalism and democracy. Also, he insisted that journalists should equip with historical consciousness and social scientific knowledge beyond roles like skilled workers. His idea of the press is still valid in the current media situation showing that journalists become skilled workers and independence of the press is risky. Looking into his activity and idea of the press can help seek for the right attitude of journalists and right roles of the media in the change of media environment.

Keywords: Gun-Ho Song, Journalist, Journalistic Activity, Thought of the Press

* Professor, Division of Media & Advertising, Sangji University